



사명자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대천교회 송천웅 목사



대천교회(송천웅 목사)는 지난 5월 28-31일까지 3박4일간 사명자 성회를 진행하였다. 성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던 30일 낮집회 시간, 교회 입구는 안내와 접수 등 참석자들을 인도하는 성도들로 분주하다. 집회장소로 들어서니 찬양과 기도의 열기로 새로 지어진 넓은 대예배당이 후끈 달아오

르고 있었다. 주변 교회들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심지어 몇몇 외국인들까지 포함하여 대략 200여 명의 참석자들이 박수치며 찬송하고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야말로 전통적인 성결교회 스타일의 부흥회이다.

사명자 성회는 송천웅 목사가 대천교회에 부임하고 2년 후인 200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4차를 맞이하였다. 초교파적으로 교회 문을 개방하여 인근 개척교회 목회자들뿐 아니라 평신도들, 그리고 태국과 러시아의 선교사 및 현지 교역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자신들의 사명을 재확인하며 영육간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올해에는 태국의 신동운 선교사를 포함한 8명의 현지 교역자들, 러시아 우태복 선교사를 포함한 9명의 현지 교역자들이 참석하였고, 교단 선교사훈련원의 훈련생들이 2년 전부터 참석하기 시작하여 이번 성회에는 5가정이 함께 하였다.

그러나 이 사명자 성회의 원조는 송천웅 목사가 아니다. 그의 부친인 홍성교회 송헌빈 원로목사가 그 시초이다. 송천웅 목사는 40년 전 아버지의 사명자 성회를 통해 홍성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어 마을 사람들이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 직접 그것을 맛보며, 회개와 신유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장본인이다. 아버지는 성회의 경비를 일체 교회가 감당하여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섬기고 바로 세워 한국교회가 은혜받는 일에 일조한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었다. 매년 600-700명 정도가 모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의 도가니가 되어 교회와 지역을 변화시켜나갔다.

13살의 어린 눈에 비친 광경들은 40년이 지난 아직도 그의 가슴과 뇌리 속에 깊은 감동으로 남아 있다. 또한 아버지의 성회를 통해 변화받아 목회에 헌신하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었노라는 간증을 계속 접하게 되었고, 자신이 직접 목회현장에 있으면서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영적, 육적 충전과 회복이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가 아버지의 사명자 성회를 이어받아 계속하게 된 이유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서는 사명자가 바로 서야 합니다. 사명자가 바로 설 때 교회가 바로 서며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송 목사는 사명자의 범위를 선교사 및 현지 사역자들까지 더 넓게 확대하여 아버지의 성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였다. 우태복 선교사는 현지 사역자들이 한국교회의 뜨거운 열정을 몸으로 체험하고 사명을 재확인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매년 성회에는 국내 참석자들의 숙식과 진행 경비는 물론, 해외 참석자들의 왕복 항공료, 국내 체제비, 성회 후 한국 산업시찰 및 놀이공원 관광 등의 비용까지 전액 교회가 부담하기에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대천교회는 매년 1가정씩 2후원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2년에 1교회씩 개척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은혜와진리교회, 미안마교회 등 4개 교회를 개척하였고 또 준비 중이다. 선교지에도 성령의 불씨를 전파하기 위해 아웃리치를 실시하거나 현지성회를 지원하고 있다. “저희 교회 평생사역의 목표는 선교사 파송과 교회개척, 사명자 양육과 전도, 사명자 성회를 통한 한국교회 섬김입니다.”

이렇게 보면 대천교회의 재정이 무척이나 넉넉해 보인다. 그런데 대천교회는 올 초 교회를 신축하고 입당하였다. 70억이 넘는 공사비가 들었지만 절반이 아직 빚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나 송 목사와 성도들은 산술적 계산에 걱정하지 않는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

끝으로 성회에 대한 기대나 바람을 묻는 질문에 송 목사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참석자들을 모시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성령충만한 성회가 되어 참석자들이 힘을 얻고 사역에 정진하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준비된 신부가 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한다. 오늘날 자신의 외형을 키우기에만 힘쓰는 많은 교회들에게 자신의 것을 헐어 다른 교회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대천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